

[항의 성명] 도쿄도 의회에서의 고가 도시아키(古賀俊昭)의원 발언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한다

우리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은 지난 2017년 3월 2일 도쿄도 의회 제1회 정례회에서 고가(古賀俊昭)의원이 질문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더 많은 혜이트 스피치를 야기 시킬수 있다고 우려하여 발언 철회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고가 씨의 질문은 1973년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애도하여 건립한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의 추모비에 관한 것이다. 고가 씨는 질문의 서두에서 "요코아미초 공원 내에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물론 이론은 없습니다" 라면서도 결론에서는 추모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책동과 유언비어 때문에 6천여 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귀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속기록 인용, 실제의 비문과는 다름)라는 비문이 "사실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과 문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유언비어와 6천여 명의 희생자 수에 대한 지론을 폐고 있다.

유언비어에 대해 고가 씨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조선 독립운동가와 그들에게 선동되어 그들을 추종하였기에 살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선인"이 있어 "일본인 자경단이 과민"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관동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고, 방화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신문기사로도 났다. 그러나 오늘 날까지도 그러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이 검거된 적도 없다. 즉 유언비어가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확실한 사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석상에서 유언비어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질문을 한 고가 씨의 책임은 매우 크다.

다음으로 희생자 수에 대해서, 고가 씨가 문제 삼는 6천여 명이라는 수는 1923년 12월 5일 『독립 신문』에 실린 "본사 과학살 교일 동포 특파 조사원 제 일 신"기사로서 관동 지방을 둘러싼 조선인 희생자를 조사한 재일본 관동 지방 이재 조선 동포 위원 팀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고가 씨는 6천여 명이라는 사상자는 근거가 희박하여 "공적 자료 등에서 근거를 찾아야만 했지만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도정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대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 "6천여 명"이라는 희생자 수의 표기는 연구자와 문학자 등이 내세운 일반적인 것이었다. 비석의 건립과 때를 같이하여 출판된 요시무라 아키라(吉村昭) 『관동대지진』은 관동대지진을 테마로 한 책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6천 명"은 명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석에 이 숫자가 적힌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혁신 도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정확한 희생자 수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일본 정부, 군대와 경찰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등의 가해의 실태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233명이라는 희생자 수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일부일 뿐, 군대와 경찰이 가해자인 사건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연구자들로부터 밝혀진지 오래다.

고가 씨는 "역사의 사실과 다른 숫자나 기술을 도쿄도의 공공시설에 설치, 전시하면 안 되므로 철거를 포함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며 비석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비석의 문구가 잘못되어 철거해야 한다면 일본 각지에 있는 비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철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가 씨가 이 추모비를 철거하라는 것은 그것이 일본인의 가해를 적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 씨의 질문은 역사적 사실의 몫이해와 부족한 공부 때문이다. 마치 지진시의 유언비어처럼 "지진 재해에 편승하여 흉악 범죄가 일어났다" 등의 확실한 근거도 없는 공개적 발언이야말로 틀림없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희생자 동포나 발기인, 모금자 등 비석을 건립했던 사람들, 비석을 지키고 비석 앞에서 희생자를 기려 온 시민들의 마음을 훼손하는 발언인 것도 강조해 두고 싶다. 우리는 고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발언을 철회, 사과함으로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한다.

2017년 6월 28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
공동대표 : 이시다 타다시(石田貞)

이시바시 마사오(石橋正夫)
강덕상(姜德相)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요시카와 키요시(吉川清)